

“ 성숙한 신자의 기도 ”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전인격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한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받을 곳이 달리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일이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 금식, 철야, 장기간 때를 쓰는 아이처럼 큰소리로 외치며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시행한다.

그러나 "계약의 신" "능력의 신"이신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분만 “의지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다. 성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을 대적, 불신, 불순종, 불충하는 사탄, 마귀 즉 붉은 용, 두 짐승으로 묘사된 거지의 영이 우리의 원수다. 그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원수의 개가를 듣는 일은 성도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수치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소자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도록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신앙을 가진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성도의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도록 하는 것이 ‘죄의식’이다. 고로 성도는 소시의 죄와 허물의 사유를 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방치한 채 문제의 해결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유의 근거는 자신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성, 자비로 즉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못 다한 성도나 공동체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짓눌림을 받을 것이라 했으나 못 다한 사명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버리시지 않고, 절망과 저주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은혜 입은 성도가 성경에서 찾아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과 깊은 신뢰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뜻을 바르게 보고 믿고 구해야 한다. ‘신실하시고’ ‘구원’ ‘공홀과 인자’ ‘죄는 기억치 않으시고, 죄인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성실, 정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은 앙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홀과 의가 만날 때 즉 여호와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은 공홀을 베푸시면서 어떻게 의를 이루시는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하나님의 공홀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의인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고 있는 성도는 다시 기도로 이어진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겨울의 끝자락 2월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안전한 예배와 활동을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스티커가 있는 자리에만 앉아 주시고, 대화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한 자제해 주시며,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220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상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용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h1>서울교회</h1>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고민하는 사람들 ”

■ **마 19:23-30**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헛될 수도 있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와는 다른 고민들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부터 ‘이렇게 살아가면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일에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고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은 삶의 근본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삶에 기습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근본적인 고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한 부자 청년의 고민
부자 청년은 1)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그는 상당한 지위에 이른 청년 정치인이었습니다. 3)부자였습니다. 즉 권력, 돈, 젊음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진실로 영생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기회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막 10:22).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 됨을 포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따르랴’할 때 돌아서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막연한 생명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슬픈 마음으로 돌아서겠습니까?

2. 제자들의 고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23-25절)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슬렁거리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의 척도는 가진 분량의 의미가 아니라 소유개념의 문제입니다. 소유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요 나는 그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는 천국가기 어려운 부자가 아닙니다. 대신 적은 것을 가졌어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면 그는 부자입니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신앙과 민족양심과 윤리를 앞세우고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 양심은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입니다. 돈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모두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26절)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바꾸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랑의 길을 실천하시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자기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3.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고민
본문에 세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27절) ‘우리 미래는 어찌되는 것입니까?’ 라는 고민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결산해 보니 가진 돈도 없고 권력의 결과지라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실했고, 기도했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답답합니다. 주님은 28,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들이 될 것이며 헌신하고 바친 것들에 대하여 세상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생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히 11:1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믿음과 정신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삶에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롬 12: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3(시 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90(9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19:23-3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고민하는 사람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38(49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30:6-7 인 도 자
 찬 송 36(36) 다 함 께
 기 도 감금채 집사
 찬 송 260(194) 다 함 께
 성 경 ... 행 15:36-16:5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 설 교 자
 * 찬 송 435(492)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석상화 권사 II부: 박수옥 권사
 성 경 행 16:6-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와서 도우라”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영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 하리라(마 19:30)		
수요1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해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장학회 위원 회의 / 20일(주일) 오전 10시15분 802호
2. 스데반 임원 모임 / 20일(주일) 오후 1시 802호
3. 한나 전도회 월례회 / 20일(주일) 3부 예배 후 503호
4. 보보 전도회 월례회 / 21일(월) 오후 9시 비대면(zoom)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 장 레
1. 故 이상재 장로(4교구 이종일 집사의 부친, 박중숙 권사의 시부) / 2월13일(주일) 별세, 2월15일(화)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62명	409명	2,071명	419명	1,967명

내니이가

주님의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들렸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결백을 보이려고 “주여 내니이가?”라고 반문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토록 병들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나는 아닐지라도 우리 중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내니이가?”라고 묻는 유다에게 “네가 말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회개가 없었다니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인간이다. 부패한 양심과 거짓말로 위선의 탈을 쓰고 “내 니이가?”라고 말하는 대신 차라리 “주여 나입니다”하고 엎드렸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감춰 보았자 창자까지 쏟아놓고 말 인간이거늘 언제까지 “내니이가?”로 발뺌만 하고 책임전가만 할 것인가.

“주여, 정직한 영을 주사 참말만 하게 하소서!”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